

교양교육과 ‘담론’의 학풍을 위해

이 광 주 인제대 명예교수

한국 대학의 문제점

대학이란 그것을 둘러싼 사회 전체의 소산이며 그 반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학은 ‘한국적’이기 마련이다. 관(官)의 간섭과 불투명한 경영, 관료주의적인 운영의 획일성, 교수 인사에서의 ‘순수 교배’의 연고주의, 중등 교육기관을 영수 학관으로 만든 주범인 입시제도, 재정적 궁핍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 환경의 낙후, 그리고 교육 부재 현상과 지적 긴장의 결여. 이상 우리 대학이 지닌 갖가지 문제점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 위상 및 문화 전통과 적지 아니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학생들은 말할 줄 모르며 글을 쓸 줄 모른다. 거의가 같은 답안지며 베껴서 제출된 리포트, 물음도 토론도 없는 강의실. 필자는 오늘날 우리의 대학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에서 특히 지적 긴장의 결여와 교육 부재 현상을 들고 싶다.

현대 사회란 전문직 집단의 사회이며 고도 기술 산업 사회에서의 대학의 주요한 과제가 유능한 테크노크라트의 육성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화’ 과학의 편중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자연과학 내에서도 이론 과학과 응용과학 특히 ‘산업화’ 과학 간의 불균형을 낳아 그것은 마침내 교육 부재 현상 내지 문화의 위기라는 심상치 않은 문제점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전문성’이란 특수성이며 테크노크라트의 편중은 인간과 사회를 도구적 기능적인 기술 지배의 메커니즘에 몰고 갈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IMF를 불러들인 우

리의 상황은 ‘유능한’ 전문직 집단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 기보다도 그들이 기술적 도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데. 다시 말하여 대국적인 안목을 지니지 못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IMF사태는 그간 대기업의 전략에 맞추어 ‘생산성’만을 지향하는 지식 편중의 학교 교육에서 그 궁극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부재의 문제성의 치유는 특히 ‘사람다움 humanities’을 소중히 하는 교양 교육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일반 교양’을 통해 교육 우선의 학풍을 오늘날에도 지키고 있는 미국 대학은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사회적 ‘공공성’을 위한 교양교육

학부(4년) 즉, 교양교육이라는 미국 대학의 전통은 학생들이 하여금 교양교육을 받은 뒤 학문 연구를 위한 대학원 혹은 전문직을 위한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한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1학년은 폭 넓은 교양과목을, 2학년은 선택교양을, 3~4학년에서는 진학할 전문대학원의 전문학과 관련된 세미 전문학을 이수한다. 특히 제일 강조되는 1학년 때의 교양과목은 ‘학제성(學際性)’을 기초로 종합적인 지적 퍼스펙티브’를 심어야 한다는 이념에 의해 문학과 예술, 과학, 역사 연구, 사회 분석, 외국 문화, 도덕 이론(철학) 등의 과목군으로 짜여져 있다. 셰익스피어를 몰라도 하버드를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적, 분석적으로 고전문학을 읽지 않고서는 졸업할 수 없다. 경

제학을 배우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사회 분석의 기초에 관해서는 모두가 배운다. 교양과정은 지식의 전수와는 무관하며 그 연구 방법에, 사물에 관한 조직적 이해, 비판적 인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활발한 물음과 토론이라는 학습 훈련을 통해 '갖가지 과목을 기초적 주제하에 조직하고 종합함'으로써 학생들이 단순히 직업적 전문성에 그치지 않는, 폭 넓은 지성과 식견을 갖추어, 서로가 공통의 기반 위에서 동일한 목표를 즉, 시민적인 '공공성(公共性)'을 자각하는 데 있다. 미국 대학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이 시민 공동체의 '공공성' 내지 '공공선(善)'의 창출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교양교육은 지난날과 같이, 단순히 인문학 중심이 아니다. 그것은 인문학 - 사회과학 - 과학의 '학습의 3위 1체'를, 그리고 전문학과의 깊은 유대를 끊임없이 지향한다. '교양'이란 '문화'의 문제를 넘어 '문명' 전체에 대한 대국적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양 공동체인 대학은 또한 지적 긴장에 찬 '담론' 공동체이기도 하다.

'담론' 공동체로서의 대학

막스 베버는 대학을 '제신(諸神)들의 투기장'으로서 표현한 바, 대학에서는 갖가지 종파와 사상, 이론과 이데올로기가 비판되고 교차되며 연구된다. 이러한 대학의 자유는 '담론 discourse' 문화를 발전시켰으니 자유롭고 활발한 담론이야말로 대학 문화의 본질이고 교수 방법론의 핵심이다. 중세 이래 유럽 대학은 '강의'와 함께, 아니 그 이상으로 '토론=세미나'를 중요시하여 왔다. '토론=세미나'는 교사가 교본 중심으로 구술하는 강의와는 달리 정해진 주제를 둘러싸고 교수와 학생 간의 담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토론=세미나'는 결론보다도 그 과정과 해법에 의의를 찾고 그에 '참가한' 학생들을 변증법적으로 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영국의 대학 평가에서 'teaching' 즉, 학생의(지적)훈련은 교수의 연구실적보다도 더 무게가 주어진다. 스스로가 인식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의 말과 문장으로써 표현하는 학생들, 문제를

제기하는 학풍, 담론하는 대학인. 유럽과 미국의 대학은 지적 긴장에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교수들에게 '독창성'을 요구하는 엄격한 '업적주의 meritocracy'와 교수 계약 제도 및 학생과 특정 전문기관에 의한 대학 - 학과 - 교수 평가 등도 '경주'와 '담론'의 학풍에 큰 몫을 함은 물론이다. 미국에서의 교양 교육의 중시는 그 담당 교수가 대체로 중진 교수인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교양 교육의 성공 여부는 지적, 인간적인 성숙함을, 창조성을 갖춘 교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교양 국어' '교양 철학'이라고 하지만 '교양'은 간 데 없고 전공과목에서와 다름없는 지식 위주의 강의, 담론이 없는 '받아쓰기'의 학풍, 대학의 본질과 거리가 먼 이러한 풍토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 해답은 자명하다. 대학을 포함하여 이 땅의 학교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 일이 언제 있었던가. 그리고 사람됨과 상상력 및 창의력을 환기하는 교육을 얼마만큼 하였던가.

학교 교육이란 사회가 그것을 요구할 때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된다. 이제까지 우리의 사회와 모든 조직은 조직의 이해(利害)에 충실한 '능력'만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능력을 지식에서만 찾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한 공리적인 실무형을 뛰어넘는, 보다 대국적인 공공의 비전을 지닌,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이의(異議)를 제기하고 스스로 구상하고 발의하는 창조성의 중요함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우리 대학의 긴급한 지상의 과제는 받아쓰기의 학풍을 청산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발언하는, 도덕성과 창조성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 대학의 체제와 운영 그리고 강의와 교육은 바로 이러한 과제를 슬기롭게 성취하는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

이광주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연구하였으며, 충남대·전주대·인제대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인제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지식인과 권력』, 『유럽사회 풍속산책』 등이 있다.